

불자 세상보기



방영준
성신여대 윤리교육과 명예교수

얼마 전 30여년의 공직생활에서 은퇴한 부산에 사는 후배에게 안부전화라도 해야 되는데 왠지 주저하게 된다. 그는 학창시절부터 야구를 무척 좋아했고, 롯데의 광팬이었다. 사직구장에서 보내는 여름은 그에게 축복의 계절이었을 것이다.

그런 후배가 지금 이 무더운 계절을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짝한 마음에 가슴이 저러온다. 집 근처에 있는 롯데마트에 가는 것도 찜찜한데 그 후배는 어떻게 생각해 본다.

아마도 큰 사기를 당한 낭패감이나, 친한 친구에게 배신당한 분노감에 젖어 있을게 분명하다.

대개의 우리 국민들은 '재벌'이라는 존재에 대하여 양가적인 감정에 빠져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우리 국민에게 재벌은 기대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미

움의 대상이다. 외국에서는 한국 경제를 재벌경제로 표상하기도 하고, 아예 'CHAEBOL'이라는 고유명사도 가지고 있다. 한국의 경제 개발 단계에서 재벌이 공헌한 역할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1960~70 년대에 재벌은 한국 경제 개발의 전위대로서 출발하였고, 그 후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급속히 성장하면서 세계 시장에서 큰 역할을 하였다. 이제 그 재벌은 한국 사회에서 큰 공룡으로 자리 잡고 있다. 지금 이 공룡은 경제 생태계를 파괴하기도 하고, 사회구성원의 윤리의식과 정의감을 마비시키기도 한다.

그러도 우리 착한 국민들은 재벌이 망할까 얼마나 조마조마했었는가. 재벌이 망하면 우리 경제가 망할 것 같았고, 해외에서 삼성과 현대의 제품을 보면서 얼마나 대견스러웠던가. 우리는 이렇게 재벌에게 얼마간 최면당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번 롯데의 막장 드라마 같은 승계 싸움을 보면서 우리는 재벌의 최면에서 깨어나기 시작했다. 아니 깨어나야 한

다. 승계를 둘러싼 형제들의 싸움은 여러 재벌 그룹에서 보아 왔지만 이번처럼 그 민낯을 드러낸 경우는 없었다. 이것이 재계 서열 다섯 번째의 한국 대기업의 모습이라니 참으로 여처구니가 없다.

이제 재벌의 신기루에 더 이상 홀려서는 안 될 것이다. 재벌의 이러한 모습은 한국 경제를 필경 파탄으로 몰아넣을 것이다. 세계 금융가에서 한국 증시가 저

롯데 사태, 재벌의 민낯 보여줘

한국사회 '재벌 신기루' 벗어나야

착한기업 전환 위한 제도 마련

평가되는 소위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북한의 위협 등 안보 상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너 리스크' 즉 가족 중심의 족벌 경영의 위험성에서 나오는 분석이 지배적이라고 한다. 이것은 한국 경제 시스템에 대한 불신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가족 중심의 족벌 경영으로는 세계 시

장에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이다. 재벌 경제적 패러다임은 이제 폐기되어야 한다. 이제 정부 당국도 재벌 보호와 경제 진흥이라는 구시대적 틀을 깨고 건전한 기업으로 기업으로 유도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적극 실천해야 할 것이다.

범죄 재벌 경영자에게 경제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사면하는 모습은 이번이 마지막이었으면 한다. 이제 재벌가 스스로 자기 혁신을 할 수 있도록 깨어 있고 행동하는 시민 정신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글을 정리하면서 아무래도 안타까운 것이었다.

롯데그룹 총수 일가들이 붓다의 지혜를 조금만 알았더라면, 그리고 조금만 실천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깊다. 붓다의 연기론과 사성제 중 집성제만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어쩌랴. 인간 삶의 고통이 욕망과 집착에서 나온 것임을, 그 지혜를 실천하기가 그렇게 어려우니 우리는 고택의 바다에서 떠도는가? 돈에 부패되지 않는 삶의 지혜와 용기가 새삼스럽다.

社說

조계종 선거 폐해없는 제도 필요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제도가 현행 간접선거 제도에서 '추첨제'로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중앙총회의 장 성문 스님, 前 호계원장 법등 스님은 8월 10일 교계기자간담회를 열고 '염화미소법'을 제안했다.

이날 제안된 선거제도 개선안인 '염화미소법'은 중정 스님이 후보자를 최종적으로 추천해 선택하는 '추첨제'를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총무원장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 가능하며, 후보자는 엄정한 검증단계를 거치게 된다. 종단 후보부와 사회기구에 신뢰 조화는 물론이고 1년간의 사유 재산에 대한 조사도 진행된다. 이어 선거인단에 의한 선거를 통해 계·정·혜 후보 3인을 선출하면 1주일 후 원로위원, 본사 주지, 총회의원 등이 배석한 자리에서 중정 스님이 3인 중 1인을 염화미소(추첨)해 행정부 수장을

선정하게 된다. '염화미소법' 제안은 사실상 직선제가 어렵다고 판단한 조계종 종책모임에게는 새로운 대안이다. 실제 삼화도량 측은 그동안 직선제를, 불교광장 측은 준직선제를 선거제의 대안으로 보고 있었다.

현행 원장 선거제도는 1994년 종단 개혁의 성과다. 하지만 20년이 지난 지금 금권, 종책모임 이익화, 직책 거래 등의 폐단을 보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종도와 국민에게 불신을 안겨주고 있다.

'염화미소법'이 아니라도 변화를 해야 할 시기인 것이다. 그간 지지부진했던 선거제도 변화의 불이 당겨졌다. 그렇다면 제대로 된 선거법 개정을 논의해야 한다. 이를 통해 앞으로 100년을 내다보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 아무리 좋은 내용의 제도가 만들어져도 누수가 없는 것이다. 얼마나 법을 잘 운영하고 구성원들이 지키는 것이 기본적인 관건이다.

산지특구, 4대강의 똥을 범할텐가

박근혜 정부가 추진 중인 '산지관광특구 제도'가 시끄럽다. 특히 불교계가 이를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가장 우려되는 곳은 민족의 영산이자 신홍사, 백담사, 오세암, 봉정암 등 걸출한 불교 기도 성지가 자리한 설악산이다.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설악산 정상 대청봉 가까운 곳에 4성급 산악관광호텔과 레스토랑 등 숙박·휴게시설을 추진하고 있고 양양군은 오색계곡을 관통하는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 중이다.

케이블카 사업이 사업적 가치가 없다는 것은 이미 증명됐다. 전국 20여 곳에 산재한 케이블카 중 후자가 나는 곳은 고작 2곳에 불과하다. 설악산에 또 다른 케이블카와 이와 연결한 정상 호텔은 건설 초부터 운영까지 환경 오염을 일으킬 것은 불보듯 뻔하다.

설악산 국립공원은 DMZ 및 울진삼척 지역과 함께 남한에 단 3곳만 존재한다는 멸종위기종 1급인 산양 집단 서식지이다. 이곳이 훼손되면 한국 생태계는 무너진다.

개발을 찬성하는 측은 말한다. 노약자와 어린이, 장애인 등 약자를 위한 시설이 필요하고 케이블카가 설치돼야 한다고. 하지만 막상 가면 알 수 있듯 약자를 위한 편의 시설 따위는 마련돼 있지 않다. 그냥 '돈'을 벌고 싶을 뿐이다.

산지와 국립공원을 개발하려는 데 혈안이 된 나라는 한국 정도다. 우리와 같은 국립공원 제도를 가진 미국 국립공원에는 케이블카가 한 곳도 없고, 일본은 1970년 이후 설치된 케이블카가 4개에 불과하다.

이미 우리는 지난 정권이 역점적으로 추진한 4대강을 통해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무분별한 개발이 어떤 폐해를 가지고 오는지 분명히 목도했다. '늑조라떼'라는 비야냥을 얻은 4대강의 삽질이 이제야 산으로 가고 있다.

불교 사찰에는 '산감(山監)'의 직책이 있다. 오래 전부터 한국불교는 산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감독해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한번 '환경보살'의 정신을 되새겨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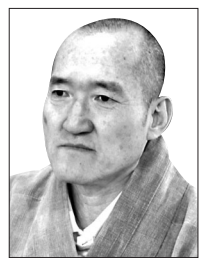
발언대

산지관광특구제도 논란

박근혜 정부의 산지관광특구제도를 두고 불교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불교사회정책연구소는 8월 10일 이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조계종 환경위원회도 반대 입장을 천명하는 세미나를 계획 중에 있다. 난개발이 우려되는 정부의 환경 정책에 대해 사부대중의 입장을 정리했다.

(편집자주)

설악산 개발, 山·불교신행 망친다



범승스님
불교사회정책연구소

근래 박근혜 정부가 '산지관광특구제도' 현실화에 근거해 설악산 정상 대청봉 가까운 곳에 4성급 산악 관광호텔과 레스토랑 등 숙박·휴게시설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강원도 양양군이 추진하고 있는 오색케이블카 사업과 연관 돼 있다. 추진 중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노선의 관광조건이 부정적으로 알려졌다. 아름다운 능선과 봉우리, 절벽이 빛어내는 장관 같은 것은 없고, 사방 지그재그로 연결된 나무데크 산책로와 전망대, 우거진 숲이 대부분이라 한다. 조망이 좋지 않은 곳을 노선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 이 구간이 그 뒤의 대청봉으로 연결되는 가장 빠른 코스이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있다. 처음부터 대청봉을 염두에 두고 노선을 설정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오색케이블카 상부승강장과 끝정봉 사이가 나중이라도 연결될 가능성이 크고 그렇게 되면 탐승객들이 정상

인 대청봉으로 대거 유입되는 것을 막을 길이 없다. 대청봉 일대의 황폐화와 오염은 자명하다. 설악산 국립공원은 DMZ, 울진삼척 지역과 함께 남한에 단 3곳에만 존재한다는 멸종위기종 1급인 산양의 집단 서식지이고, 이 구간은 국내에서 매우 희귀한 아고산 식생대를 보이는 곳이다. 특히 중간지주 4, 5, 6번이 세워서 벌 구간과 상부승강장에서 끝정까지의 구간은 야생동식물들의 낙원과 같은 곳으로 알려져 있다.

할머니들이 한 발 한 발 설악산 적멸보궁 봉정암에 오르는 모습을 보라. 그분들은 땀을 흘리고 오르 그 험준한 곳에서 사람들은 땀하고 응어리졌던 마음의 고뇌를 다 내려놓고 지극한 위로와 평화를 얻는다. 긴 여정 끝에 찾아오는 기쁨과 환희는 힘든 과정서 자신의 한계를 극복한 후이나 가능하다. 그런데 불자들에게 케이블카를 타고 편하게 앉자에 참배하고 호텔에서 잠을 자고 레스토랑에서 창밖의 경치를 감상하다 내려오지 않겠냐는 주장은 신앙과 정신세계 가치를 철저히 무시하는 발상이다.

난개발 우려되는 정부 개발정책



이병인 부산대 교수
조계종 환경위원

정부가 추진하는 '산지관광특구제도'에 따른 설악산 개발은 그야말로 앞뒤가 안 맞는 정책집행이다. 설악산 국립공원은 '자연공원'으로 보호되어야 할 가치가 이미 입증돼 있다. 과거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 등록이 거론될 만큼 그 자연경관과 식생이 높은 평가를 받아왔다. 그런데 이를 보호는커녕 무분별한 개발 속에 방치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처사다. 환경을 생각하는 마인드는 배제된 채 일방적이고 독단적으로 진행되는 면에서는 매우 부정적인 생각이 든다.

정부가 환경부는 중앙 결정에 휘둘러 앞으로 설악산 보존에 관한 제대로된 관리조차 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된다.

특히 정부는 과거부터 케이블카 설치 이유로 지역경제활성화와 장애인, 어린이, 노약자 등 편의를 위한 것이라는 대표적 근거 두 가지를 들었다.

그러나 이것도 실질적으로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우선 전국에 관광용 케이블카가 설치된 약 20곳 중 후자가 나는 곳은 설악산 금강성과 통역 미륵산 두 군데 뿐이다. 10분의 1 정도가 적자인 것이다. 경제성이 검증되지 않은 채 또다시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한다면 후에 적자가 났을 경우 누가 책임질 것인가? 특히 요즘 케이블카 설치하는 민자 유치보다 공영개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 국민 세금이 실익성 없는 대규모 사업에 새어나갈 위험이 있다.

또한 장애인, 어린이, 노약자를 위해 케이블카를 설치한다 해놓고 막상 케이블카에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설비가 전혀 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케이블카를 타러 가는 길과 케이블카 내에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수용인원이 제한되고, 결국 이는 경제적 이익에서 마이너스를 가져온다.

이러한 과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표면적이고 형식적인 근거로 무분별한 개발을 추진하는 정부 정책에 대해 심히 걱정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해월 인쇄인 : 배성환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 | | | |
|-----|-------------------------------------|-------------|---------------------|
| 편집국 | 02)2004-8253 FAX (02)737-0698 | 회사홈 연불닷컴 | www.hyunbul.com |
| 광고국 | (02)2004-8213-6 FAX (02)737-0696 | 실시간 뉴스 연불뉴스 | www.hyunbulnews.com |
| | | 쇼핑몰 연불샵닷컴 | www.hyunbulshop.com |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영주지국 : (054)634-3429
전북지사 : (063)910-8977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을 준수한다

국내 유일 14인치 마이프랜드 박스팬 선풍기!

마이프랜드 정품 32,000원

무료배송, 정품확인 완료 73,000원

강력한 터보팬동작, 무료배송 84,000원

선풍기 무료배송
당일배송 및 안전배송

마이프랜드 정품인증 완료

박스팬 선풍기 32,000원
스탠드 선풍기(리모컨포함) 73,000원
터보팬 선풍기 84,000원

입금계좌
농협 1282-17-003433 (주)한메소프트

문의전화 02)879-2007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불교서적 / 신행용품 / 명상음반

www.buddhabook.co.kr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 5가 120 동일하이빌 B1(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5분거리) Tel: 02)953-7181